

온전한 복음이란?

대전덕신부 / 1994

제가 얼마전에 미가엘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성경보다 더 혁명적인 책이 없다고 말하고 성경을 읽을수록 혁명적인 정신을 얻는다고 말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말이 너무 강하고 혹은 이상하게 느꼈다고 편지를 보내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단어의 어감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먼저 「혁명」 이런 말을 좀 설명할까 합니다. 영어로는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레볼루션의 세가지 뜻 중에 「회전운동」이란 말도 있고 「대변혁」이란 뜻도 있고 또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혁명」이란 피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지배계급으로부터 빼앗아 변혁시킨다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밖에 없는 왕이라고 인정하니까 무슨 정부가 들어서도 최고권력으로 인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번 정부가 혁명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혁명하는 그 성경정신을 구약시대의 얘기로만 돌리고 그저 온유한 사람만 되면 성서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싸우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호랑이 같이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 해방 운동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말입니다. 모세가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싸우지는 않는다고 해석해버리고 말면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모세도 그러했지만 온유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 이것이 혁명적인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오면 완전한 변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오면 어두운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지금 세력을 잡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두운 행실을 하는 사람이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따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거나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로마제국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로마제국은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종교적인 이야기만 했다면 스테반처럼 돌로 맞아 죽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왜 죽게 했을까?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유태교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종교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비웃었습니다. 철학이나 종교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세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도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기업」이란 무슨 말입니까? 기업이 나의 것입니다. 내가 탈취를 당했지만 그래도 나의 기업이란 희년이 되면 다시 법적으로 기업이 나에게 돌아오면 기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법이 무슨 말에 대한 법인지 모릅니다. 구약 레위기 25장에 토지법이 나와요, 각 사람 앞에 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토지는 자기 기업입니다. 기업을 잃어버려도 즉 빼앗음을 당하던지 이용을 당하던지 술 취해 팔았던지 그래도 그 가족의 기업이기에 때문에 희년이 되면 다시 거저받을 것입니다. 돈내고 얻는 것이 아니고 거저 다시 찾을 것입니다. 50년 이상 토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영어성경에 보면 「정의 (영어로는 Justice)」란 말 잘 안씹니다.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싫어해요. 「의 (Righteousness)」란 말이 착하다, 착한 사람이란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도대체 어떠한 착함입니까. 공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의 (義) 라고 번역해서 공자가 가르치는 의인지 불교에서 가르치는 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의, 공의 즉 사회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그런 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방법 중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영적인 것도 됐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해결이란 뜻이며 단지 천당간다는 의미에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문제해결, 무슨 문제해결?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지 않았다면 내가 성령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받은 다음에 내가 완전히 새사람되고 나에게도 혁명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 그것도 혁명적입니다. 그런데 그 새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와 똑같이 살고 예수와 똑같이 가르치고.

바울의 말씀 한 구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왜 피에 대해 깨끗합니까?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 사람 피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the whole counsel of God)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고 했는데 「다 전하였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부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소위 보

수주의,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이야기만 하면 된다고 하며 사회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마지막 부탁한 마 28 : 20 말씀보다 더 무서운 명령은 없습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분이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복음 (福音)」이란 말을 자꾸 사용하는데 복음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복음이란 말이 원래 「좋은 소식 (Good News)」이란 말인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서로 나누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위해 책임지고 서로 가족인줄 알고 서로 형제 자매인줄 알고 누구든지 어려우면 금방 문제 해결하도록 했는데 불쌍히 여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동생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義)입니다.

초대교인들은 혁명시키도록 싸우지 않았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코이노니아」란 말이 나왔어요. 코이노니아가 무엇입니까? 공의, 그런데 특별한 공의입니다. 「교인끼리 모든 것을 통용한다. 성도들이 서로 위해 책임진다」 공의란 말 안 쓰고 대신 「코이노니아」란 말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세속과 대적하는 정신 가지고 언제 죽음 당할는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왜 예수의 첫째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왜 스테반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왜 야고보도 죽음을 당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가겠다고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의를 행하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20세기가 몇 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한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쳤다면 오늘날 세계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회개할 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우선 성령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코이노니아 (나뉘춤, 교통) 하는 것과 죄사함을 주는 권세를 믿고 사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없으면 공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외치는 것이 공의이며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고 믿기를 원하지만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몰라요. 또 복잡

해서 낙심하고 중도 포기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참말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 출처 : 은누리신문